

한전KDN-KAIST '에너지 AI 혁신모델 개발' 맞손

지능형 캠퍼스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 구축
AI 원천기술·에너지ICT 융합 시너지 기대
국내 넘어 글로벌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손잡고 차세대 에너지 기술 고도화에 나선다.

한전KDN은 9일 "전남 KAIST와 대전 소재 KAIST 본원 제1회의실에서 '에너지 AI 혁신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협약식에는 박상형 한전KDN 사장과 이광형 KAIST 총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 배경 소개와 기관장 인사말, 협약서 서명 및 교환과 향후 협약 이행에 대한



방안 등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인공지능(AI+X) 기반의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 실증 시험체계(Test Bed) 구축과 글로벌 연구, 교육 및 캠퍼스 혁신 사업 선도를 통한 차세대 에너지 기술 고도화와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협약을 추진해 왔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AI+X(인공지능 융합 기술) 기반의 에너지 실증모델 '지속가능한 전력공급(Sustainable Powering) AI'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글로벌 파급효과 평가 체계(Global Impact Framework)' 연구개발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

또한 이를 위해 KAIST는 ▲글로벌 수출 및

적용 목적의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 개발 ▲기존 해외 캠퍼스 협력 모델(KAIST 뉴욕 모델) 고도화 ▲캠퍼스 에너지 실증 AI 거버넌스 관련 추진 체계 구축 등을 담당하게 된다.

한전KDN은 ▲캠퍼스 내 구축된 전력 관련 설비·장치 분석을 통한 지능형 캠퍼스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 구축 ▲KAIST의 기술 고도화 및 수출 모델 개발 지원 등을 수행한다.

한전KDN은 전력ICT로 시작해 에너지ICT로 발전시켜 온 에너지ICT 플랫폼 역량과 세계적인 KAIST의 AI 기술력 결합을 통한 융합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에너지ICT를 선점하고 KAIST 캠퍼스를 하나의 독립된 전력망(Micro Grid)으로 운영하는 최적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의 협약 이행 시작은 AI 기반 에너지 관리 플랫폼의 기술적 완성도 개선과 KAIST 캠퍼스 내 '탈탄소 리빙랩(Living LAB)' 구축이다.

이를 통해 KAIST 캠퍼스의 재생에너지 수용률 100%와 핵심 연구소의 무중단 전력 공급체계 구축과 실질적인 탄소중립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형 한전KDN 사장은 "이번 협약은 한전KDN의 에너지ICT 현장 역량과 KAIST의 인공지능 관련 원천기술의 결합으로 디지털 전환을 넘어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를 선도하는 공공·학계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에너지 주권을 지키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한국형 신전력망 구축과 미래 에너지 신사업 개발로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의 중요한 전략인 AI 3대 강국이라는 정부 정책을 실천하는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이 되겠다"고 전했다.

/임재만 기자

광주본부세관, '달라진 관세환급제도' 안착 지원

정보 사각지대 해소·기업 편의 극대화

광주본부세관은 9일 "중동 상황 등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 수출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개편된 관세환급제도에 대해 안내 및 홍보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정보 제공에 나선 것이다.

이를 통해 광주본부세관은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 실무적 편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상세 안내 자료는 광주세관 홈페이지(<https://customs.go.kr>) 자료실에 상시 게시되며, 지역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이메일 발송 등 각 기업이 희망하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기존의 딱딱한 법령 나열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들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주요내용과 시행일자, 관련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언급했다.

/박은성 기자

광주조달청-인공지능사업단 '혁신기업 지원' 협력

AI 기업 발굴·공공조달시장 진입 촉진

광주지방조달청은 9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 AI 기업 발굴 및 공공조달시장 진입·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AI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AI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AI 기업 발굴 및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AI 기반 혁신제품의 조달시장 등록 및 판로 확대 지원 ▲공공기관 수요 발굴 및 매칭 지원 ▲AI 기업 대상 조달제도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분

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광주조달청은 혁신조달 제도를 활용해 유망 AI 기업의 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기술력 있는 기업 발굴과 기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김우현 광주지방조달청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의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공공조달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조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는 최근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개최된 가족사랑 걷기대회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인 광주시 공동브랜드 '빛잔들' 쌀을 배부하며 홍보 활동을 펼쳤다. 사진은 행사에 참여한 광주지역본부 임직원과 시민들의 단체 기념 사진. (농협 광주지역본부 제공)

농협광주본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캠페인

지역경제 활성화 선한 영향력 전파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는 9일 "최근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열린 가족사랑 걷기대회 행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호 농협광주본부장을 비롯한 농협 임직원 10여명이 참여했으며 행사 참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답

례품으로 선정된 광주시 공동브랜드 빛잔들 쌀을 나눠주며 고향사랑 기부 동참을 호소했다.

이철호 본부장은 "올해로 4년차를 맞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며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를 통해 지역소멸이 완화되고 지방재정이 보완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 외 고향, 지자체에 연간 2천만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며,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지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4%, 20만원 초과분은 16.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액의 30% 상당의 지자체별 답례품도 선택해 받아볼 수 있다.

/안태호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상무지국 453-2554	· 유동지국 222-8171	· 오치지국 261-9461
	· 산수지국 224-4188	· 광천지국 374-2120	· 운암지국 529-3548	· 문흥지국 261-9462
	· 학운지국 673-6836	· 진월지국 676-2726	· 용봉지국 261-1503	· 일곡지국 573-3200
	· 화정지국 372-9140	· 봉선지국 673-6836	· 신가지국 954-1420	· 첨단지국 971-7374
	· 금호지국 376-7153	· 백운지국 673-0123	· 양산지국 574-3745	· 치평지국 371-9584
· 금호지국 603-0311	· 두암지국 266-1920	· 하남지국 951-9954	· 수완지국 955-0451	
· 노대지국 674-3581	· 농성지국 362-4102	· 운남지국 952-1687	· 광신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나주지사 061)335-0005	· 보성지사 061)852-6644	· 무안지사 061)453-3645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광양지사 061)793-6800	· 화순지사 061)373-7795	· 함평지사 061)322-0882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구례지사 061)782-4696	· 장흥지사 061)863-6800	· 영광지사 061)353-5133
	· 신안지사 061)980-8300	· 담양지사 061)383-5566	· 강진지사 061)432-8899	· 장성지사 061)394-3636
	· 순천지사 061)746-1600	· 곡성지사 061)362-5746	· 해남지사 061)535-5849	· 완도지사 061)555-0134
	· 여수지사 061)651-6433	· 고흥지사 061)832-6290	· 영암지사 061)473-7151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